

추미애 지휘권 발동에 윤석열 자문단 중단

“검언유착” 수사지휘 손 떼고 보고만 받아라” 지시 윤석열,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수용 여부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미라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특히, 추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대검에 건의한 대로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형식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

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윤 총장) 본인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총장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사실상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미라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3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

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추 장관이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요건이 차고 넘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검은 회의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고 있는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與, 공수처장 후보 중립인사 물색

윤호중 법사위원장 “통합당 지연 작전시 법 개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 출범을 위해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차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각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비토권을 가진 상황에서 정파적 인사를 추천하면 공수처 출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일단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람을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검찰개혁 세미나 참석 후 “연락이 오면 생각해보겠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선 현행 공수처법 시행, 후 필요하면 개정 추진’으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통합당의 참여를 끌어내도 발목잡기가 이어질 경우 법을 개정할 여지도 남겨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끝까지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발족이 한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 법 개정에도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통합당 복귀 ...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정상화

7월 임시국회 소집 때 등원 추경, 與 단독 처리 불가피 공수처 후속법 등 대치 예고

미라통합당이 2일 의사일정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 길에 들어섰다.

통합당은 그러나 3일 3차 추경 심사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여당 단독의 추경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복귀 여부에 대해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고 7월 임시회를 소집하면 그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신네(민주당)가 독주하니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환영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 언제까지 안 들어오고 밖에 있겠느냐”며 “상임위 명단을 제출한다고 하니 업무보고도 받아야 하고,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현안마다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원내 투쟁’을 명분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연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내세워 화교하는 만큼 갈등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1호 당헌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더해 통합당이 위안부 피해자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 정국의 휘발성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이 독점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해 “상대가 있는 문재인 만큼 상임위원장 문제는 통합당이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물어봐 한다”며 “재배분 가능성을 포함해 정치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김부겸, 다음주 민주당 당권 도전 선언

김부겸 전 의원이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김부겸 캠프는 2일 “원래 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내부 결정했지만 이날 연 의원이 7일 출마선언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선언일을 9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초를 캠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출마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되어야 하고,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문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 조사 49.4%...민주당 38.1%·통합당 30%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약 4개월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또 미라통합당의 지지도가 3개월여만에 30%대에 진입했다.

리얼미터가 6월 2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9.4%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5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3주차 조사(49.3%) 이후 15주 만이다. 부정 평가는 3.4%포인트 오른 46.1%로, 역시 3월 3주차(47.9%) 이후 가장 높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사에서 통합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0.0%로 집계

됐다. 20대와 가정주부, 학생, 중도층에서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3.1%포인트 하락한 38.1%로 나타났다. 지난 4월 5주차(7.4%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민주당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2월 2주차(39.9%) 이후 20주 만이다. 열린민주당은 5.4%였고, 정의당 5.2%, 국민의당 2.7%였다. 무당층은 16.0%였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이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